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- 담당 : 사회문화연구부 최윤규 부연구위원
(063-280-7180)

보도시점: 2019년 11월 15일(금)부터

1인 미디어 생태계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

1인 미디어 발굴부터 교육, 제작지원, 창업까지 생태계 구축

불임. 전라북도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 원고

- 전라북도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- 전북연구원은 15일 이슈브리핑 '전라북도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'에서 1인 미디어 발굴부터 교육, 제작, 창업까지 이어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.
-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동영상 제작과 공유의 기술장벽이 완화된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북의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.
- 연구원은 우선 공모전을 통한 1인 미디어 발굴을 제시했다. 구체적으로 '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'과 정부가 추진하는 '전라권 1인 미디어 공모전'을 전북으로 유치하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.

- 더불어 전북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자체 공모전을 개최하여 1인 미디어를 통해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이어서 연구원은 1인 미디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전문 교육과정과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장르별 1인 미디어 교육과정을 제안했다.
- 또한 연구원은 발굴된 1인 미디어를 위한 창작공간인 ‘1인 미디어 팩토리’를 제시했다. 이는 1인 미디어에게 스튜디오와 촬영, 편집 등 제작장비를 제공하는 시설이다.
-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1인 미디어를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. 기획과 출연, 촬영, 편집, 법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1인 미디어 환경에서 5인 이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현실적 창업 방안으로 제시했다.
- 연구 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전라북도는 전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”며 “이러한 매력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